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HPAI 발생 부화장 피해 대책 전무
살아있는 새끼오리 폐기 마음 아파



한국오리협회 부화분과위원회
마낙중 위원장

“2~3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 HPAI 발생으로 인해 오리 산업은 벼랑끝 외출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오리협회 부화분과위원회 마낙중 위원장은 그 동안 오리업계 종사하면서 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HPAI는 오리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마 위원장은 20년 가까이 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며 오리산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HP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PAI 발생 20년 부화장 대책은

마낙중 위원장은 “2003년 국내 최초로 HPAI가 발생된 이후 수시로 발생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업계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매년 수시로 바뀌는 방역대책과 보상대책,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오리업계를 떠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HPAI 발생에 따른 부화장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은 부화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 위원장은 “부화장의 경우 직영 종오리농장은 물론 외부 종오리농장에서 종란을 입식해 임부화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외부농장에서 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 종란은 물론 부화장내 종란을 모두 폐기해야만 한다”며 “종란 상태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낫지만 이미 부화한 살아있는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폐기되는 종란이나 새끼오리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종란 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휴업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리산업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온 산증인으로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오리협회 부화분과위원회도 종오리분과위원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오리분과위원회 개선필요

마낙중 위원장은 주원산오리의 전신으로 국내 오리계열업체의 원조였던 주원농산에서 80년대 초반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해 오리업계에서 평생을 바쳐왔다.

주원농산이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이후 현재 원천오리농장을 설립해 종오리와 부화업을 시작했다.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고성장 시기에 오리계열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부화장들도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마 위원장은 오리계열화 초창기에는 종오리농장, 부화장, 계열업체가 분업화가 이뤄져 상생의 길을 걸었다. 이후 계열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직영 종오리농장,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개인 부화장들이 설 길이 없어졌으며 현재는 계열업체들의 위탁부화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체질도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 위원장은 “부화분과위원회만으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대부분 계열업체들이 직영 부화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화분과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현실이라며 종오리부화분과위원회로의 개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위원장은 “현재 계열업체 직영 부화장을 포함해 20여개 남짓에 불과해 부화장만으로는 역할에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부화분과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종오리부화분과위원회로 개편할 경우 종오리농장까지 분과위원회로 확대할 경우 100여개 가까운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